

Ⅲ. 北韓 動靜

1. 4者 豫備 會談의 成果와 展望

- (의의) 작년 4월 한미 공동 제안이후 잠수함 사건과 식량 지원 문제 등으로 진척이 없었던 4자회담 구도가 공식적으로 가동하기 시작
- (성과와 한계) 9월 중순 뉴욕에서 2차 예비회담을 속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본회의 개최 시기, 장소, 대표단 구성, 운영방식에는 쉽사리 합의하였으나 의제 문제는 남북간의 의견 차이가 커 합의를 보지 못함
- (의제를 둘러싼 각국의 입장) 북한은 주한 미군 철수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의제로 주장하나 한국과 미국은 이를 반대하고 중국은 중립적 입장을 표명
- (會談 展望) 주한 미군 철수문제와 북미평화협정 체결은 남북간에 양보가 어려운 문제로서 앞으로 난항이 예상됨

중국의 참여로 명실상부한 4자 회담 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였음

- (의의) 작년 4월 한미 공동 제안이후 잠수함 사건과 식량 지원 문제 등으로 진척이 없었던 4자회담 구도가 공식적으로 가동하기 시작
 - 남북한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4자회담 논의가 중국의 참여로 4자회담에 의한 한반도 문제 논의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였음
 - 그간 소극적이었던 북한의 회담 참여는 식량 지원의 확보와 대미 관계 개선 필요성 때문이며 이 점에서 북한은 앞으로도 4자회담에 계속 응할 것으로 보임

본회의 개최 시기, 장소, 대표단 구성 및 운영방식에는 쉽게 합의하였으나 의제의 합의에 실패, 2차 예비회담을 9월 중순 뉴욕에서 개최

- (성과와 한계) 9월 중순 뉴욕에서 2차 예비회담을 속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본회의 개최 시기, 장소, 대표단 구성, 운영방식에는 쉽사리 합의하였으나 의제 문제는 남북간의 의견차이가 커 합의에 실패
 - 본회담은 예비회담 종료후 6주 이내에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합의
 - 대표단 구성은 수석 대표를 각국 외무장관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고위관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
 - 운영절차에 있어서는 ▲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설치하되 구체적인 소위원회 구성문제는 본회담에서 결정하고 ▲회담의 사회는 4개국 윤번으로 하되 처음에는 미국이 맡고

그후는 남북한과 중국이 추첨으로 순서를 결정하며 ▲결정은 전원합의에 의할 것을 합의하였음

- 그러나 의제문제는 북한이 주한 미군문제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의제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함으로써 합의에 실패

북한은 주한 미군철수와 북미 평화협정을 의제로 주장, 4자 회담의 사실상 북미 회담화를 시도하여 한미의 반대에 부딪힘

○ (의제 선정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) 북한은 주한 미군 철수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의제로 다룰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과 미국은 이를 반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중립적 입장을 표명

- 북한은 주한 미군 철수 문제와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구체적으로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
 - 북한은 상호평등의 원칙에 의해 북미관계가 먼저 개선되어야 하며 남북한의 신뢰 조성과 경협 문제는 남북간에 따로 논의할 것을 주장
- 한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긴장완화 및 신뢰 구축 등 포괄적인 문제를 논의할 것을 주장
 - 북한의 주장은 4자 회담을 실질적으로 남한을 배제한 북미 회담으로 몰고 가려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
- 미국은 신뢰구축과 정전협정 대체라는 포괄적 의제를 주장하여 한국을 지지하고 있음
- 중국은 남북한 합의를 희망하는 중립적 입장을 표명
 - 중국의 기본 입장은 남북 화해, 북미 관계 개선,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과 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임

북한의 주장은 4자 회담의 성격을 규정짓는 문제로 남북간에 양보가 어려워 본회의 개최에 난항이 예상됨

○ (4자 會談 展望) 주한 미군 철수문제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간에 양보가 어려운 문제로서 앞으로 난항이 예상됨

- 주한 미군 철수 및 북미 평화협정 문제는 4자 회담의 기본 성격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남북한간 타협하기 어려운 문제임
 - 북한 주장은 북미관계를 4자 회담의 중심축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남한은 남북관계를 중심축으로 하고 있어 기존의 대결 구도가 되풀이되고 있음
- 북한은 한미양국이 본회담에 앞서 150만 톤의 식량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남한이 이를 거부하여 이를 빌미로 회의를 공전시킬 가능성이 있음 (오 삼 교)